

중국인관광객의 제주해양관광 활동유형, 만족도, 재방문의사에 관한 연구[†]

이진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A Study on the Strategics of Marine Tourism Activity Types, Marine Tourism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of Chinese Tourist visiting Jeju Island

Jin-Hee Lee*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3243, Korea

Abstract

The ocean is used as the term of sea, it is expressed as a large sea. Marine tourism is an activity that takes place in the sea and on the coast. Many experts prospect that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century of ocean.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are interested in ocean and marine tourism can be significantly developed in the future. Jeju Island is an island formed by a volcanic eruption, which has a very high landscape value, and It is an oceanic climate with a yearly high temperature due to turbulent flow throughout the years, But Marine tourism is not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arify the Marine Tourism activity types, Marine Tourism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JeJu island. And studies what is the needed activity types of Chinese Marine Tourist in future. This study deals with on the activity types,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of JeJu Marine Tourism With 252 effective responses gathered from an on-site surve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using techniques of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anova analysis.

Keywords : Marine tourism, Marine Tourism activity types, Marine Tourism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Chinese Tourists

Received 13 June 2017 / Received in revised form 25 September 2017 / Accepted 25 September 2017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82-64-754-3172 , jinhei@jejunu.ac.kr

© 2017,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I. 서 론

해양이란 바다를 과학적으로 쓰는 경우에 사용하며, 넓고 큰 바다를 표현하는 말이다. 해양은 해안과 연안 및 해상, 도서를 포괄하고, 해양관광은 해역과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해양에 의존하거나 해안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바다의 공간인 해안과 해양에서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활동이다(이진희, 2008).

해양관광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21세기는 해양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Hall, 2001), 해양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Davenport & Davenport, 2006). 해양관광은 관광산업 중에서 관광객의 참여율이 높으며, 경제적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크루즈의 취향과 해양 레저용 장비의 개발로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Moreno & Amelung, 2009). 최근에는 다양한 해양관광활동 유형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해변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해상, 해중, 해변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에서 관광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허양례, 2010).

현대에는 다양한 관광산업 중에서 해양관광과 레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과 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양공간은 해변, 해상, 해중 및 해저 전반에 걸쳐 휴양지 · 관광지 등으로 이용방안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보는 관광 위주의 정적인 관광에서 체험위주의 관광형태와 스포츠형태의 활동성이 강한 동적인 관광으로 관광의 형태가 변모할 것으로 보이지만(이재곤, 2005), 해양관광산업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신혜숙, 2005).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에서 쇼핑과 식도락을 즐기고 제주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관광 패턴을 보였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관광공사가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도 여행 선택 시 고려 요인(중복응답)은 자연경관 감상이 62.2%, 휴양 · 휴식이 12.6%, 쇼핑이 7.3%로 나타났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재방문율이 낮고 체류시간도 짧다. 2014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제주를 두 차례 이상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비율은 9.6%에 불과했다(세계일보 2016년 2월 12일 임성준 기자).

제주도는 화산폭발로 형성된 섬으로 해양의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해양성 기후로 연중 난류가 흐르고 있어 연평균기온(°C)이 제주시 15.5°C, 서귀포시 16.2°C로 육지부에 비하여 높은 지역이다. 약 20°C의 높은 연중수온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해저에도 용암류가 응결하여 만들어 낸 암초와 산호, 해저동굴 등의 화산섬의 특징으로 인해 해양관광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이의희 · 김영남 · 서용건, 2011).

제주도는 섬 전체에 12개의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고, 해수욕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접안시설과 해안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하기에도 적합하다. 서귀포 앞바다(문섬, 범섬 일대)와 사계리 앞바다(형제섬 일대), 차귀도, 우도 등은 해저경관이 수려하고 산호 등 해양생물들이 많으며, 연중 해수온도가 높아 국내 주요 스킨스쿠버 포인트로 인정받고 있다(이진희, 2009).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하와이, 오키나와 등과 같은 섬 관광지보다 본토에서 근거리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해양경관이 아름답고, 해저생물이 다종다양하며, 해수가 맑아 가시거리가 길고, 조류가 급하지 않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관광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진희, 2007).

해양관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해양관광의 마케팅 방안(김성귀, 1998; 신혜숙, 2005; 양길승,

2008), 해양관광의 활동유형과 선택속성(이상춘 · 여호근(2001; 김기호 · 정기한, 2010; 한상겸, 2015), 해양관광의 방문동기, 관광만족 및 재방문의도(최나리, 2005; 황지현, 2006; 이근모 · 김준, 2007; 김성혁 · 김용일 · 요재경, 2012)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어촌관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선택속성과 만족도(이재후, 2005; 손재영, 2008; 장양례 · 윤유식 · 구분기, 2011), 어촌관광 방문동기와 만족도, 재방문의도(신동주 · 손재영, 2008; 김은정, 2009; 정경희, 2011)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광에 관한 연구로는 제주도 해양관광의 속성 및 만족도(이진희, 2008; 이의희, 2012), 해양관광의 만족도(이의희 · 김영남 · 서용진, 2011; 허진 · 이영진, 2015), 해양관광의 동기와 만족도, 재방문의도(엄홍흔, 2016) 해양관광의 활성화 방안(정승훈 · 김구, 2014)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주도 어촌관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어촌 관광마을의 발전방안(이진희, 2009; 이진희 · 홍월식(2010; 이진희, 2014), 어촌관광 방문동기(이진희, 2011)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제주도 관광지 매력속성에 대한 기대, 지각된 성과, 만족, 재방문의사의 영향관계(김형미 · 문성종 · 송재일, 2006),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확대에 따른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정지형 · 김현태, 2014), 제주지역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신왕우, 2014), 해양관광 선호도 및 제주여행에 관련된 내용조사(정승훈 · 김구, 2014). 제주도 해양관광동기, 만족, 사후행동의도(엄홍흔, 2016)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해양관광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해양의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해양성 기후로 연중 난류가 흐르고 있고 해저생물이 다종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양관광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참여한 해양관광 활동유형, 만족도, 재방문의사 등을 파악한 후 향후 제주도에 필요한 해양관광 활동유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해양관광의 개념

해양을 영어로는 the sea 혹은 the ocean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양에 관한 사전적 정의로는 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넓고 큰 바다인 외해(外海)로 이해되고 있다. 해양은 해조류와 어류 등을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향유하게 만드는 관광자원으로서 귀중한 역할을 한다(이상춘 · 노창현, 2002).

해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관광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해양관광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해변에서 해저, 해중, 해상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Abed, Monavariand & Karbasi, 2011, p.120).

해양관광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넓고 큰 바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권(水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해양’과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인 ‘관광’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복합명사로 볼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3).

해양관광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해역과 해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이며, 해양에 의존

하거나 해안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Hall, 2001; 해양수산부, 2006; 안종현·이장주, 2003; 박상규, 2008).

Pagh(1996)는 해양관광을 해양과 해변에서 이뤄지는 여가활동을 창출하는 관광·레저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활동과 연안 근처의 지역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였고, Orams(1999)는 관광객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부터 벗어나 해양환경이 주축이 되거나 해양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여가활동이라 정의하였다.

해양관광은 연안 또는 물과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드라이빙, 해변에서의 야영, 카약, 해양생물의 관찰, 낚시와 경관감상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활동(Collins, 2007; 112)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해역과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양에 의존하거나 해안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와 바다의 공간인 해안과 해양에서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활동(이진희, 2008)으로 정의한다.

해양관광은 해중·해상·해변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관광행위로서,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 지역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해양 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을 의미하며(김성귀, 2007), 해양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역할, 매력성으로 인한 모든 관광활동(양희재, 2004)을 지칭한다.

김성진(2010)은 해양관광을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목적의 활동을 의미하며, 바다를 바탕으로 해변이나 도서, 어촌 등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해양이나 해양자원이 있는 곳에서 관람, 운동, 휴양 등의 활동을 통해 감동을 얻는 체험과정 등으로 정의하였다.

2. 해양관광의 유형

해양관광은 Marine Tourism으로 표현되는데(Moscardo & Pearce, 1997), 김성귀(2005)는 해양관광 유형을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 해변 스포츠, 경관감상, 일출 및 일몰 감상, 해양문화 관광으로 분류하였고, 이상춘·여호근·최나리(2004)는 관광객들이 공간적으로 연안과 해안지역에서 생활체험, 교육, 경관감상, 해상 및 해중 체험을 비롯하여 자신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게 되는 제반활동으로 밝히고 있다.

장병권(2002)은 해양관광활동 유형에 따라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분류해 놓고 해양의존형 활동은 역동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스포츠형과 레저형·관광형으로 분류하였다. 스포츠형은 모터보트, 수상스키, 요트, 윈드서핑 등이며, 레저형은 해변에서 휴식과 레저를 겸하는 것으로 해수욕, 파도타기, 모래찜질, 낚시, 갯벌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포함하였다.

도미경(2004)은 해양이나 해양관광자원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관람, 운동, 휴양 등의 활동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원별 유형으로는 육지부, 해안지역, 해상과 해중으로 구분하였다. 육지부는 해안선, 해변, 절벽과 바위 등으로 경관감상 위주의 해양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해안지역은 해수욕장을 포함한 연안지역이라 할 수 있고, 해상과 해중지역은 해수면과 해저수중으로 구분하였다(도미경, 2004).

지삼엽(2008)은 해양관광활동의 유형을 스포츠형, 레저형, 관광형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스포츠형에는 세일링요트, 모터요트, 수상오토바이, 윈드서핑, 해양카약, 해양조정, 씨워킹,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패러세일링, 카이트보드, 서핑, 스킨·스쿠버다이빙, 제트레버 플라이어(Jetlev-Flyer), 바다

보트(선상)낚시, 플라이피시, 바나나보트, 워터슬라이드(Water Slide)류 등의 해양스포츠가 있다. 레저형은 해수욕, 선댄, 조개잡이, 모래찜질, 갯벌 및 머드체험, 각종 기구를 이용한 물놀이가 있다. 관광형은 크루저선, 잠수정, 위그선, 투명카누, 해상케이블카, 수중전망대, 해양수족관관람, 고래관찰, 등대탐방, 어촌민속관람, 수중비행기 등이 있다.

국민관광의 수요증가와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관광활동은 휴식 및 휴양은 물론 레저스포츠, 체험활동 등으로 다변화되어 일반적으로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구분된다. 해양의존형은 해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형태의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으로 구분되며, 해양연관형은 해양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유형을 의미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관광유람이나 요트, 보트 등의 세일링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상이나 관광잠수함, 스킨스쿠버처럼 해중 또는 해저에서 관광활동을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 해중, 해저에서 해양관광활동이 활성화하려면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기술이 필요하다(이의희, 2012).

해양관광은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기상조건, 조류현상, 온도, 바람, 태풍, 조석현상 등 유동하는 현상인 바다를 접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며, 해양의 자연적·환경적·문화적 조건은 지구의 생성과 함께 고유한 특성을 축적해 온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 이용에 한계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이영진, 2009).

해양관광의 특징은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해양이나 해양과 인접한 연안이다. 해양은 지역에 따라 수온, 수심, 조석간만의 차, 탁도, 바다 색깔 등에 차이가 있는데, 해양의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조류가 약하고 탁도가 낮은 동해안에서는 스킨스쿠버활동이 적합하며,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갯벌체험이 적합하다. 내만은 정온수역으로 마리나 등이 입지하기 유리하며, 외해에 접해 파고가 높은 지역은 서핑하기에 적합하다. 꽃은 육지에서 바다경관을 감상하기에 적합하고, 기암절벽은 바다에서 육지경관을 감상하기에 적합하다.

Orams(1999)는 해양관광의 활동유형을 활동형 해양관광(Activity-Based Marine Tourism), 자연형 해양관광(Nature-Based Marine Tourism), 사회·문화형 해양관광(Social and Cultural Attractions Marine Tourism), 이벤트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해양관광기회 스펙트럼분석기법(Spectrum of Marine Recreation Opportunity)을 도입하여 해양관광유형에 접근성, 거리, 인간의 영향력, 타인 접촉 등 환경적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Orams이 개발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해양관광활동의 유형이 정착되면서 많은 후속연구에 원용되었다(Balgos, 2005).

3. 해양관광의 만족도

만족이란 뜻의 영어단어인 satisfaction은 enough라는 뜻의 라틴어 'satis'와 'to door make'라는 뜻의 라틴어 'facere'에서 유래되었는데(Oliver, 1993), 만족이란 관광활동 참가의 궁극적 동기가 되며, 관광체험 후 과거 또는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지각된 성과가 기대된 성과와 비교한 관광경험 총체에 대한 심리적 구성개념이다(정경희, 2011).

관광만족은 관광체험의 후속 단계를 대표하는 심리적 개념으로(고동우, 1998), 관광객이 방문 전의 기대와 방문성과와의 일치여부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광객 태도로 볼 수 있으며(박정규·엄서호, 1998; 임정민, 2001), 관광만족은 기대나 성과가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희성·김창수, 2007; 김길수, 2010).

관광객의 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한데, Griffin(1995)은 고객과의 관계구축을 통해 유발되는

구전광고효과를 관광만족의 구성요소라고 하였고, Zeithaml과 Parasuraman(1996)은 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전 및 재 구매 의도가 있으며, Baker와 Crompton(2000)은 만족을 공연의 질과 만족 및 행동 목적과의 관계에서 만족·기쁨·호의·긍정의 4가지 요소로 분류하였으며, Parasuraman과 Grewal(2000)는 관광만족 요소로 재 구매 의도와 추천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Geva & Goldman(1991; 99)은 관광객 만족을 미리 갖고 있던 신념과 관광 후 얼마나 일치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의해 관광객 만족의 달성정도가 판단된다고 하였고, Lounsbury & Polik(1992, p.105)은 관광객이 관광경험 전체에 대한 사후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경험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관광지 만족속성은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속성으로 구성된다. 만족속성과 전반적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는 특정속성 만족도가 증가하면 전반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소하면 전반적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가 일반적이었다(김기호·정기한, 2010; 김성혁 외, 2012; Thrane, 2002).

오상훈·고계성(2006)은 관광지매력물의 관리는 관광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장운정·이승일(2008)은 문화관광지 매력이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하였다.

총체적 관광객 만족은 관광활동을 통하여 여러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광객의 통합적 관광경험에 대한 평가이다(이창남, 2004, p.43). 신혼여행상품 선택속성요인 중에 신혼여행상품요인과 직원서비스요인이 전체적 만족도와 재 방문의사에 가장 큰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창남, 2004, p.90).

김용만·김경춘·이계석(2008)은 해양스포츠 박람회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개최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최지 박람회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투자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가치를 제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문선호·조태수(2011)의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이벤트에 참여자의 만족과 지역이미지 간의 관련성을 고찰한 결과, 스포츠 이벤트 참여의 혜택만족, 교통만족, 비용만족은 지역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훈·양성수·박승영(2010)은 크루즈 기항지에서 자연환경 감상, 식사·휴식·쇼핑 등의 관광활동들이 관광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크루즈 관광에 대한 가치가 증대됨을 입증하였다.

4. 해양관광의 재방문의사

고동우(1998)는 전반적 관광객 만족과 함께 재방문의도는 관광경험후의 심리적 변수인데 재방문의도란 관광지의 체험을 근거하여 해당 관광지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관광만족과 재방문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는데 관광만족과 재방문의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민창기, 2001), 관광만족은 관광행동의 태도로 재방문의도와 같은 관광 후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정경희, 2011). 관광지의 재방문 의도는 방문한 관광객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평가가 좋으면 재방문의도가 커지고, 평가가 나쁘면 낮아진다는 것으로 관광객만족이 관광객의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은미·강인호(2007; 엄홍훈, 2016).

최병창(2000)은 해양관광지가 있는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지역이 어린이와 동반된 가족여행자에게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재방문의도에 긍정적 영향이라는 것을 밝혔다. 나혜현(201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행태별 관광동기는 관광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관광만족도와 사후행동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관광만족도가 사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유소영, 2012; 김성혁·김용일·오재경, 2012) 나타났으며, 관광동기, 관광지 이미지, 해양관광활동, 관광공연 참여 등과 연관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Ⅲ. 실증분석 결과

실증적 연구는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참여한 해양관광 활동유형, 만족도, 재방문의사 등을 파악한 후 향후 제주도에 필요한 해양관광 활동유형이 무엇인지를 분석규명하기 위하여 제주에서 해양관광활동을 한 후 제주도를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설문조사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제주대학교 중국어과 학생들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목적은 설명하고 설문응답하겠다는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기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사용하였다.

조사시기는 2015년 8월 7일~8월 16일, 2015년 8월 28일~9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265명의 응답지중 부실응답을 제외한 252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AS 9.3 window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일차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방문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방문 시 경험한 해양관광활동의 유형을 분석하였고, 제주방문 형태별 해양관광활동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해양관광활동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주 해양관광활동이 제주를 여행지로 선택하는데 미친 영향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하였고, 제주방문 형태별 만족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제주방문 형태별 재방문의사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의 특성 분석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 30대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판매직과 자영업자, 기업경영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2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200~2,000만 원, 2,000~4,00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주방문 목적은 순수 관광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방문 형태로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방문객의 동반자수로는 3~4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6명, 7명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제주방문 횟수로는 처음 방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방문객의 제주 숙박일수로는 3박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박 이상, 4박 5일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 시 경험한 해양관광활동유형을 분석한 결과, 해양관광지방문(해양박물관, 해양수족관, 해양경승지 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변걷기, 해양레저활동(해수욕, 낚시, 유람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51	59.9
	여	101	40.1
연령	30대 이하	47	18.6
	30~39세	93	36.9
	40~49세	76	30.2
	50대 이상	36	14.3
직업	사무직	65	25.8
	기업경영직	40	15.9
	판매직	46	18.3
	자영업자	46	18.2
	기타(공무원, 생산직, 학생, 주부 등)	55	21.8
연평균 가구소득	1,200만 원 미만	73	29.0
	1,200~2,000만 원	72	28.6
	2,000~4,000만 원	64	25.4
	4,000만 원 이상	43	17.0

<표 2> 제주 방문 특성 분석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제주방문 목적	순수 관광	220	87.3
	비즈니스(회의, 사업, 업무 등)	10	4.0
	기타(신혼여행, 친지방문 등)	22	8.7
제주방문 형태	기타(단독, 여행을 통한 개별관광 등)	51	20.2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	201	79.8
동반자수	2명 이하	40	15.9
	3~4명	102	40.5
	5~6명	67	26.6
	7명 이상	43	17.0
제주방문 회수	처음	221	87.7
	2번째 이상	31	12.3
제주 숙박일수	3박 이하	100	39.7
	4박 5일	66	26.2
	5박 이상	86	34.1

<표 3> 제주방문시 경험한 해양관광활동유형 분석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제주방문시 해양관광활동	해변건기	79	31.4
	해양관광지방문(해양박물관, 해양수족관, 해양경승지 등)	110	43.7
	해양레저활동(해수욕, 낚시, 유람선 등)	44	17.5
	기타(수산물시식, 수산물구매 등)	19	7.5

2. 제주해양관광 행태의 특성분석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 행태별 해양관광활동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행을 통한 단체관광객은 해양관광지방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변건기, 해양레저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단독, 여행을 통한 개별관광 등) 관광객은 해양관광지방문의 비율이

<표 4> 제주방문 형태별 해양관광활동 유형 분석

구분		제주방문 형태		계
		기타(단독,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 등) 관광객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	
해양관광활동 유형	해변걷기	7명(2.8%)	72명(28.6%)	79명(31.4%)
	해양관광지방문	25명(9.9%)	85명(33.7%)	110명(43.6%)
	해양레저활동	9명(3.6%)	35명(13.9%)	44명(17.5%)
	기타	10명(3.9%)	9명(3.6%)	19명(7.5%)
계		51명(20.2%)	201명(79.8%)	252명(100.0%)

<표 5> 향후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해양관광활동 유형 분석

Source	자유도 (DF)	제곱합 (Sum of Squares)	평균제곱 (Mean Square)	F Value	Pr >F
Model	3	13.190	4.397	3.81	0.011

구분		연평균 가구소득별				계
		1,200만 원 미만	1,200~2,000만 원	2,000~4,000만 원	4,000만 원 이상	
해양관광활동 유형	해양레저·스포츠	18명(7.1%)	12명(4.7%)	22명(8.7%)	13명(5.2%)	65명(25.7%)
	해양체험(해수욕, 낚시 등)	21명(8.3%)	23명(9.1%)	17명(6.8%)	19명(7.5%)	80명(31.8%)
	해양시설(유람선, 수족관, 잠수함 등)	17명(6.7%)	13명(5.2%)	17명(6.8%)	5명(2.0%)	52명(20.7%)
	어촌마을체험	17명(6.8%)	24명(9.5%)	8명(3.2%)	6명(2.4%)	55명(21.8%)
계		73명(29.0%)	72명(28.6%)	64명(25.4%)	43명(17.0%)	252명(100.0%)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양레저활동, 해변걷기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연평균 가구소득별 향후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해양관광활동 유형에 대한 ANOVA TEST를 통한 평균차이분석을 시행한 결과, $p < 0.05$ 수준에서 관광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향후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해양관광활동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가구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은 해양체험(해수욕, 낚시 등), 해양레저·스포츠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평균 가구소득이 1,200~2000만 원은 어촌마을체험, 해양체험(해수욕, 낚시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연평균 가구소득이 2,000~4000만 원은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체험(해수욕, 낚시 등)과 해양시설(유람선, 수족관, 잠수함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연평균 가구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은 해양체험(해수욕, 낚시 등), 해양레저·스포츠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5> 참조).

3. 제주 해양관광활동이 제주여행지선택에 미친 영향의 차이분석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해양관광활동이 제주를 여행지로 선택하는데 미친 영향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성별, 연령별, 연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공무원, 생산직, 학생, 주부 등)의

<표 6> 제주 해양관광활동이 제주여행지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항목		직업별					t값	p값
		사무직	기업경영직	판매직	자영업자	기타		
제주여행지선택 영향	평균값	3.677ab	3.225c	3.630ab	3.500bc	3.927a	4.66	0.0012
	표준편차	0.903	0.800	0.645	1.006	0.634		

주 1) * : p<0.1, ** : p<0.05, *** : p<0.01

주 2)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a<b, 첨자간 p<0.05에서 유의한 평균 차이)

주 3) 평균은 제주 해양관광활동이 제주여행지선택에 미친 영향 점수의 산술평균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무직, 판매직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4. 제주 방문형태별 해양관광 만족도 차이분석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해양관광의 만족도에 대한 T-TEST를 통한 평균 차이분석을 시행한 결과, p<0.05 수준에서 관광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의 만족도(4.438)가 기타(단독,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 등) 관광객의 만족도(4.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 제주방문 형태별 해양관광 만족도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항목		기타(단독,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 등) 관광객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	t값	p값
해양관광 만족도	평균값	4.294	4.438	2.918	0.233
	표준편차	0.729	0.638		

주 1) * : p<0.1, ** : p<0.05, *** : p<0.01

주 2) 평균은 제주방문 형태별 만족도 점수의 산술평균임.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한 후, 관광버스를 타고 해변걷기, 해양관광지방문, 해양레저활동 등을 하다가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면세점이나 쇼핑센터에 들러 관광상품을 구매하는 패키지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한 후 버스나 택시를 타고 원하는 해양관광활동을 하는 개별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5. 제주 방문형태별 재방문의사 차이분석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재방문의사에 대한 T-TEST를 통한 평균차이분석을 시행한 결과, p<0.05 수준에서 관광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의

<표 8> 제주방문 형태별 재방문의사에 대한 평균차이분석

항목		기타(단독,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 등) 관광객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	t값	p값
재방문의사	평균값	3.765	4.174	12.418	0.002**
	표준편차	0.710	0.731		

주 1) * : p<0.1, ** : p<0.05, *** : p<0.01

주 2) 평균은 제주방문 형태별 재방문의사 점수의 산술평균임.

재방문의사(4.174)가 기타(단독, 여행을 통한 개별관광 등) 관광객의 재방문의사(3.765)보다 높게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장을 세분화한 후 세분된 시장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을 선정하고 필요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으로는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등)에 의한 세분화와 행동분석적 변수(관광목적, 관광행태 등)를 사용하였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도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으며, 제주도 해양관광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해양관광활동이 제주를 여행지로 선택하는데 미친 영향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공무원, 생산직,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무직, 판매직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향후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해양관광활동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소득계층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활동유형은 해양체험(해수욕, 낚시 등)이므로 이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중가/고가의 다양한 가격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해수욕장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축하공연, 댄스공연, 고기 방류행사, 해녀물질대회, 해안도로 걷기 대회, 요리만들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야간에는 캠프파이어를 운영한다. 낚시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주도 내에 산재하고 있는 갯바위 중에서 낚시포인트를 개발하고, 인공어초 시설어장과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어류가두리 양식장, 외해가두리 양식시설 주변을 활용하여 낚시터로 활용한다.

둘째, 1,200만 원 미만 소득자, 2,0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활동유형은 해양레저·스포츠이므로 이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중가/고가의 다양한 가격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주로 하는 해양레저스포츠로는 스킨스쿠버, 스노클링이며, 잠재력이 있는 것은 요트와 모터보트 등이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스킨스쿠버 운송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축제 개최시 해양레저스포츠와 연계를 강화한다. 스킨스쿠버를 즐기려는 초보자, 숙련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스킨스쿠버를 즐기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학교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4,0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활동유형은 해양시설(유람선, 수족관, 잠수함 등)이므로 이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중가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잠재력이 있는 해양관광활동인 관광잠수정이며, 여름에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옵션상품으로 잠수함관광 등을 선호한다. 현황 제주에 위치한 제주해양과학관인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2012년 7월 성산읍 섭지코지에 개관하였으며, 해양체험관, 수족관, 공연장 등의 시설이 있다. 제주지역에는 향후 국가 마리나항만계획에 의해 5곳, 자체계획에 의해 3곳 등 8곳을 마리나항, 6곳을 피서리나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정승훈·김구, 2014). 마리나항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도 내 마리나항들이 요트계류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마리나항 기능을 갖추기 위한 시설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1,2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활동유형은 어촌마을체험이므로 이

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먹거리, 수산물 가공상품구매 등을 할 수 있는 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한다. 어촌마을에서 개발한 음식으로는 오조리 전복죽, 시흥리 바지락죽, 동북리 회국수가 유명하다. 제주도의 어촌마을에는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해녀식당이 있는데, 물회, 옥돔구이, 고등어와 갈치조림, 객주리 조림, 성계국수 등의 먹거리를 중국인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여 민박체험과 함께 제공한다. 마을어장의 일부를 개방하여 체험어장으로 활용한다. 해녀 및 어업인을 관광 안내도우미로 지정하여 낚시대 제공, 물고기 잡는 방법, 보말잡기, 생태습성 등을 알려주고 안내한다. 해녀들의 탈의장, 교육공간, 정보교류의 장소인 불턱을 만들고, 제주선인들이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잡이하던 원담을 만들며, 제주도의 원시적인 고깃배인 테우를 만들며, 바다속에 직접 들어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유어장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해양관광의 만족도에 대한 T-TEST를 통한 평균 차이분석을 시행한 결과, $p < 0.05$ 수준에서 관광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의 만족도(4.438)가 기타(단독,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 등) 관광객의 만족도(4.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재방문의사에 대한 T-TEST를 통한 평균차이분석을 시행한 결과, $p < 0.05$ 수준에서 관광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의 재방문의사(4.174)가 기타(단독,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 등) 관광객의 재방문의사(3.7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74만 9,596명으로 집계됐는데, 2016년 같은 기간 80만 8,626명보다 7.3% 감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1만 8,990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의 12만 8,341명에 비해 85.2%나 줄었는데,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하였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17년 04월 06일 최충일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관광공사가 2016년 한해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4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4.4%가 개별여행객, 63.3%가 패키지 여행객, 2.3%가 일부 단체 여행객으로 조사됐다(한강타임즈 2017년 03월 16일 조영남 기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광객 중 34.4%인 산커(散客: 주로 20~30대의 개별관광객)를 표적시장으로 공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드보복조치가 해제되었을 때 개별여행객과 단체관광객을 함께 표적시장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패키지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한 후, 관광버스를 타고 해양관광목적지에 도착하여 해변건기, 해양관광지방문(해양박물관, 해양수족관, 해양경승지 등), 해양레저활동(해수욕, 낚시, 유람선 등), 기타(수산물시식, 수산물구매 등)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어소통의 불편함이나 이동에 대한 문제가 적기 때문에 해양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한 후 버스나 택시를 타고 원하는 해양관광 목적지에 도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관광활동을 할 경우에도 언어소통의 불편함 때문에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공항에서 중국인이 선호하는 맛집, 해양관광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정보, 해양관광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통역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제주도에 방문하여 해양관광활동을 경험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해양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조사해야 해양관광 상품개발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장소가 제주국제공항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을 조사한 반면에 크루즈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해양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해양관광동기가 다를

수도 있다. 또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회수가 증가하고, 해양관광경험이 많을 경우 심층설문을 통한 고급통계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고동우 (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호 · 정기한 (2010), “해양관광지의 속성이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5 (5), 123 - 141.
- 김길수 (2010), “관광동기, 만족과 충성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귀 (1998), “해양관광 상품개발의 방향”, *관광학연구*, 27, 482 - 488.
- 김성귀 (2005), “울주군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57차 울주관광학술 심포지엄, 3 - 20.
- 김성귀 (2007),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34.
- 김성진 (2010),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안지역의 특성 및 관광요소별 중요도 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혁 · 김용일 · 요재경 (2012), “해양관광 방문동기 시장세분화에 따른 해양관광활동 차이와 관광만족 및 관광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부산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7 (1), 172-36.
- 김용만 · 김경춘 · 이계석 (2008), “해양스포츠 박람회 참가자들의 참여동기, 박람회 서비스품질, 참여만족도, 서비스 이미지 및 개최지 이미지와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3 (3), 13 - 26.
- 김은정 (2009), “어촌관광 참여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미 · 문성중 · 송재일 (2006),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지 매력속성에 대한 기대, 지각된 성과, 만족, 재방문의사의 영향관계 -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지 매력속성에 대한 기대, 지각된 성과, 만족, 재방문의사의 영향관계”, *관광연구저널*, 20 (3), 171 - 184.
- 나혜현 (2011), “슬로우 투어리즘 관광객의 이용행태, 관광동기, 만족도와 행동의도간의 관계: 대구올레 팔공산 코스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경 (2004), “국내해양관광개념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6 (1), 140.
- 문선호 · 조태수 (2011), “스포츠 이벤트의 참여만족과 지역 이미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0 (1), 161 - 173.
- 민창기 (2001), “해양관광지 방문객의 관광동기분석”, *관광학연구*, 24 (3), 249 - 265.
- 박상규 (2008), *(해양 레저시대의) 스쿠버 다이빙*, 대경북스, 268.
- 박정규 · 엄서호 (1998), “기대와 지각된 성과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 (2), 317 - 318.
- 백승현 (2007), “해양스포츠관광 선택 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재영 (2008), “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어촌관광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동해안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23 (1), 107 - 132.
- 신동주 · 손재영 (2008), “어촌관광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 (3), 255 - 273.
- 신왕우 (2014), “제주지역 중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학연구*, 17, 90 - 116.
- 신혜숙 (2005), “해양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4 (3), 257 - 272.
- 안중현 · 이상주 (2003), “해양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자 대관광지 관광지 방문동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3 (2), 97 - 119.
- 양길승 (2008),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관광연구저널*, 22 (4), 445 - 459.
- 양희재 (2004), “해양관광 참여동기와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홍훈 (2016), “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해양관광동기, 만족, 사후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오상훈 · 고계성 (2006), “관광목적지 매력속성에 따른 중요도 - 성취도 연구 - 일본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1 (1), 177 - 190.
- 유소영 (2012), “관광공연 관광만족도가 긍정적 한국이미지 및 사후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모 · 김준(2007),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 (2), 117 - 130.
- 이상춘 · 노창현 (2002), “해양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관광·레저연구*, 13 (2), 103 - 112.
- 이상춘 · 여호근 (2001), “해양성레크레이션 활동유형별 선호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3 (1), 43 - 59.
- 이상춘 · 여호근 · 최나리 (2004), *해양관광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 이영진 (2009). “해양 레저관광행동 영향요인 구조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미 · 강인호 (2007),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관광동기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24, 47 - 63.
- 이의희 (2012), “해양관광 선택속성이 만족과 방문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의희 · 김영남 · 서용건 (2011), “제주도 방문 해양관광객의 중요도 - 만족도(IPA)에 관한 연구: 해수욕, 해상유람, 스킨스쿠버 참가자를 중심으로”, 2011년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189 - 221.
- 이진희(2007). “제주도 해양관광의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세미나, 97 - 105.
- 이진희(2008),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제주해양관광의 속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 (4), 213 - 233.
- 이진희 (2009),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24, 159 - 184.
- 이진희 (2011), “제주도 어촌관광 동기분석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7 (3), 43 - 53.
- 이진희 (2014), “제주도 어촌체험마을의 관광 명소화 전략”, *경남대학교 Green & Blue 융합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단*.
- 이진희 · 홍원식 (2010), “표선 어촌마을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36, 389 - 432.
- 이재곤 (2005), “해양관광 매력요인 연구”, *관광서비스연구*, 5 (2), 19 - 135.
- 이재후 (2005), “국내 섬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23, 115 - 134.
- 이창남 (2005), “신혼여행상품 선택과 만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성 · 김창수 (2007), “테마여행의 참가동기 · 사전기대 · 사후만족 · 재참가 의사간의 영향관계”, *관광연구저널*, 21 (2), 257 - 271.
- 임정빈 (2001), *관광자원해설이 관광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병권 (2002),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개발방안”, *문화관광연구*, 4 (1), 2 - 3.
- 장양례 · 윤유식 · 구분기 (2011). “어촌관광객의 선호속성, 어촌체험관광 만족도 및 체험관광상품개발 지지도, 추천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연구*, 25 (6), 341 - 363.
- 장윤정 · 이승일 (2008), “IPA 분석을 이용한 문화관광지 매력성에 관한 연구: 전통 공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0 (4), 103 - 121.
- 정경희(2011), “체험관광동기가 관광만족도와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함평석두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훈 · 김구(2014). *제주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정승훈 · 양성수 · 박승영 (2010). “크루즈 관광의 기항지 관광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중국인 관광객을 대

- 상으로”, *관광경영연구*, 14 (3), 183 – 203.
- 정지형 · 김현태(2014),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확대에 따른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 *한중인문학연구*, 43, 293 – 317
- 지삼업 (2008), *마리나관리론*, 서울, 대경북스.
- 최나리 (2005), “해수욕장의 방문동기, 관광만족 및 재방문의도 연구 ·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0 (2), 165 – 181.
- 최병창(2001), “방한 중국관광자 만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 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제주해양관광특성화 계획수립 용역*.
- 한상겸(2015), “인천광역시 도서의 선택속성이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신도 · 시도 · 모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7 (2), 51 – 68.
- 황지현 (2006), “청소년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참여동기가 참여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7(2), 601 – 610.
- 허양례(2010), “해양관광지 방문객의 가치, 라이프스타일, 동기와 매력속성 지각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진 · 이영진 (2015), “해양 레저관광지의 관광객만족 세(三) 요인 구조”, *관광학연구*, 39 (3), 251 – 264.
- 해양수산부 (2006), *2006년도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
- Abed, M. H., Monavariand, M. and Karbasi, A. (2011), “Site Selection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by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for Sustainable Coastal Tourism,” *IPCBE*, 15, IACSIT Press, Singapore.
- Baker, D. A. and Crompton, J. L. (2000), “Q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 (3), 785 – 804.
- Balgos, M. C. (2005), “Integrated costal management and marine protected areas in the Philippines: concurrent developments,” *Ocean & Coastal Management*, 3, 1 – 24.
- Collins, J. H. (2007), “Marine Tourism in the Kimberley Region of Western Australia,” *Geographical Research*, 46 (1), 2008.
- Davenport, J. and Davenport, J. L. (2006), “The impact of tourism and personal leisure transport on coastal environments: A review,”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280 – 292.
- Geva, A. and Goldman, A. (1991), “Duality in Consumer Post-purchase Attitud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2, 141 – 164.
- Griffin, J. (1995), *Customer Loyalty: How to Earn, How to Keep it*, Lexington Books, New York.
- Michael Hall, C. (2001), “Trends in ocean and coastal tourism: the end of the last frontier?,” *Ocean & Coastal Management*, 44, 601 – 618.
- Lounsbury, J. W. and Polik, J. R. (1992), “Leisure needs and Vacation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14 (2), 105 – 119.
- Moreno, A. and Amelung, B. (2009), “Climate change and coastal & marine tourism: review and analysis,” *SI 56(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astal Symposium)*, 1140.
- Moscardo, G. and Pearce, P. (1997), “Th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the Cruise Line Indust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stal and marine tourism,” Honam University, in Korea.
- Oliver, R. L. (1993), “Cognitive, Affective, and Attritive Bases of the Satisfaction Respon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418 – 428.
- Orams, M. (1999), *Marine Tourism; Development, Impacts and Management*, London: Routledge.
- Pagh, N. (1996), *At Home a Float; Gender and Northeast Coast Marine Travel Account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Cananda).

Parasuraman, A. and Grewal, D. (2000), "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quality-value-loyalty chain: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28 (1), 168 – 174.

Thrane, C. (2002), "Music Q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With in a Jazz Festival Context," *Event Management*, 7 (3), 143 – 150.

Zeithaml, V. A., Berry, L. L. and Parasuraman, A.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The Journal of Marketing*, 60 (2), 36.